

5월 광주·다큐·SF...독립영화 만나다

4~7일 광주극장서 '독립영화제'
개막작 '좋은 빛, 좋은 공기' 등
40편 무료 상영...임흥순 감독 대화

1980년 5월 광주의 이야기부터 암흑세계를 그린 SF 영화까지 다채로운 주제의 독립영화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제9회 광주독립영화제'가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 슬로건은 '안녕하CINE? 안녕하시네!'로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도 안녕하고, 시민들도 안녕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겼다.

영화제는 '5월 이야기', '광주극장과 친구들', '배우 초청전' 등의 섹션으로 구성, 올 한해 화제를 모았던 독립영화 신작을 포함해 총 40편의 영화들을 소개하며, 영화 상영 후에는 GV(관객과의 대화)도 열린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온라인을 통해 영화를 즐기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온택트 신작선'을 새롭게 마련했다.

개막작으로는 '좋은 빛, 좋은 공기'를 선정했다. 지난 2015년 다큐 '위로공간'으로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한 임흥순 감독의 작품으로, 광주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과거와 현재를 추적해 전 세계에서 반복되는 폭력과 학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전한다.

'5월 이야기' 섹션에서는 5·18 당시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시민군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의 회상을 담은 박종익 감독의 다큐멘터리 '증인'을 비롯해 '팬텀아', '그날' 등 6편을 소개한다.

'단편 신작선'에서는 지역 감독들의 신작을 만날 수 있다. 디스토피아를 상상한 SF영화인 '리사이클(REcycle)', 임용고시 장수생인 손녀와 감나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할머니와 감나무' 등이 상영된다.

'다큐멘터리 신작선'에서는 81세의 나이로 영면한 임동규 선생의 이야기를 담은 '빛자루



조재형 감독의 '그날'.



개막작 '좋은 빛, 좋은 공기'

도사와 동지들', 세월호 유족의 삶을 그린 '그럼에도 살아간다' 등 5편을 상영하며, '온택트 신작선'에서는 통영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마침내 물들다'를 스크린에

올린다.

올해 각종 영화제에서 두각을 나타낸 작품들을 상영하는 초청작들도 풍성하다. '단편초청'에서는 '우리의 낮과 밤', '자전거 도둑', '유통기한' 등 15편의 단편영화들을 상영하며, '다큐멘터리 초청' 섹션에서는 '사당동 더하기 33'과 '재춘언니'를, '장편극영화 초청'에서는 '가장 환하고 따뜻한'을 선보인다.

독립영화배우를 집중 조명하는 코너에서는 배우 문혜인을 소개한다. '나가요', '한낮의 우리', '혜영' 등을 통해 문혜인만의 개성있는 연기를 확인할 수 있다.

폐막작인 영화 '휴가'는 해고무효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한 노동자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 부문과 서울독립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하기도 했다.

한편, 광주독립영화제는 이번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광주 감독의 작품 16편 중 다섯 작품을 선정해 총 300만원의 제작지원금을 후원할 예정이다. 광주독립영화제 홈페이지 참조. 무료관람. 문의 062-224-585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조정래 '태백산맥' '아리랑' 이어 '한강'도 100쇄

대하소설 3부작 모두 100쇄 돌파

조정래(사진) 작가의 대하소설 3부작이 모두 100쇄를 돌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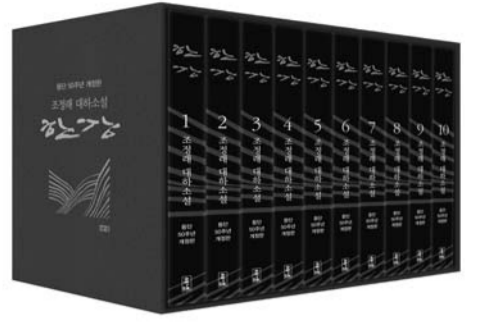


해냄 출판사는 자체 집계 결과 조정래의 '태백산맥', '아리랑'에 이어 '한강'이 100쇄를 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태백산맥'은 266쇄, '아리랑' 144쇄를 찍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정 작가의 대하소설 3종이 모두 100쇄를 넘긴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올해 등단 50주년과 겹쳐 이번 3부작 100쇄 돌파는 작가 조정래의 저력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읽힌다.

'한강'은 1998년 '한겨레' 연재로 시작했으며 3년 8개월 만에 전 10권이 완간됐다. 원고지 총 1만 5000장에 달하는 분량으로 지금까지 판매량은 모두 305만 부다.

임현영 문학평론가는 "1960~1970년대의 억압과 저항, 분열과 통일, 가난과 풍요, 고독과 연대의 모순을 부조(浮彫)한 대중 판각화"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처럼 작가는 분단의 상처가 채 가지 않은 폐허 속에서 개발 독재와 천민자본주의로



인한 한국사회의 모순과 분열을 정지하게 그려왔다.

조정래는 작가의 말에서 "반세기 동안 글을 써온 그 세월이 언뜻 실감이 되지 않았다. 흘러간 세월 앞에서 으레 갖게 되는 무상감이었다. '태백산맥'부터 펼쳐 읽기 시작했다. 완간 후 31년만의 일이었다. '아리랑'도, '한강'도 다시 읽기는 처음이다. 한 줄, 한 줄 읽어나가는 감회는 낯선 듯 새롭고, 경이롭기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루트머지, '치유야행 옥상콘서트' 클라우드펀딩 진행

퓨전국악그룹 루트머지가 이달 말 개최 예정인 '치유야행 옥상콘서트'에 앞서 오는 4일까지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다.

이번 콘서트는 장기화하는 코로나19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장소이자 한편으로는 도심 속 '로망'과 같은 옥상에서 우리소리인 국악을 현대적으로 편곡해 선사하는 자리다.

'치유야행 옥상 콘서트'는 펀딩에 참여한 이들에 한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펀딩은 와디즈에서 진행중이며, 1만원·3만원·5만원·10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10만원 펀딩 리워드로는 '치유야행 옥상 콘서트' 공연영상과 루트머지 음반 '법고장신', 태교음악을 모아놓

은 'Tick Tack'을 비롯한 스페셜 영상이 포함돼 있다.

공연은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며, 이탈리아 칸초네 '불라레'와 변진섭의 '희망사항'을 국악으로 편곡해 들려주며 판소리 다섯마당인 '수궁가', '흥부가', '적벽가', '춘향가', '심청가' 눈대목을 모티브로 한 창작곡 5곡도 선보인다.

한편, 루트머지는 한국의 전통음악을 가야금, 콘트라베이스, 해금, 아코디언 등으로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국악을 선보이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며 국악의 가치를 재조명하겠다는 목표로 창작, 공연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강석이 유머인생' 엔 삶의 지혜와 묘미 담겼다

영광 출신 이기원 수필가 '밥벌레의 행복' 펴내

영광 출신 이기원 수필가가 '밥벌레의 행복' (문지사)을 펴냈다.

'강석이의 유머인생'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은 유머와 에세이가 결합했다. 이 수필가는 "이제 회갑을 훌쩍 넘기고 나니 내리막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싶어졌다"고 밝힌 의미를 밝혔다.

저자는 강석이라는 주인공을 내세워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따른 삶의 지혜와 의미 등을 짧은 글로 풀어낸다. 나이를 달리해 등장하는 주인공 강석은 저자로 수렴된다. 또한 점차 성장해가는 강석의 유머에는 연령에 따른 인생을 사는 지혜와 묘미가 담겨 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돌아아'는 돌잔치날을 맞아 치러진 잔치에 대한 이야기다. 돌잔치때문에 하루종일 시달린 강석이는 저녁 무렵에 한 마디를 던진다. "돌잔치 두 번만 했다간 또라이 되겠다. 정말이지 돌아버리겠구만!!"이라고.

마지막 유머 '후사'는 죽기 직전 부인의 손을 잡으면서 건네는 내용이다. 강석의 말, "당신 똥은 따로 챙겨 놓았으니 여생을 편히 지내구려. 비밀번호는 처음 약속한 숫자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덧붙인다.

"여보! 후사를 부탁하오. 일만 잘되면 저승에 가서도 꼭 후사하리다."고.

재기 넘치는 유머는 이 수필가의 삶을 바라보는 통찰력과 글솜씨를 엿보게 한다. 군데군데 담긴 유머는 잔잔한 미소를 넘어 한편으로는 폭소를 터트리게 한다.

저자는 "이름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수필가는 지금까지 '남자는 두 번 죽지 않는다', '아내의 고를 자전거', '바람 나그네', '회전목마'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구문화원 '내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단체' 선정

광주 서구문화원(원장 정인서)이 38억 원 규모의 2021년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로 선정됐다.

서구문화원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최근 실시한 '2021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심사에서 8개 분야(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국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서구문화원은 2019년 이후 3년 연속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서구 문화원은 향후 광주지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 380여 운영학교에 330여 명

의 예술강사를 배치해 문화예술교육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체험활동, 토요동아리, 선택 과목을 운영하게 된다.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이 운영단체와 협력해 학교에 전문예술강사를 지원, 파견하는 사업이다.

현재 서구문화원은 2019년에 이어 26억 규모의 2020년 학교예술강사 170여명의 인력을 200여개 학교에 지원, 파견하는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